

## 12예언서 내 스바냐의 정경적 위치와 그 함의

유윤종\*

### 1. 시작하는 말

유대교의 경전 분류에 의하면 12예언서는 한 권으로 다루어진다. 그 전통은 외경의 벤시락(집회서) 49:10에서 처음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열두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유대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열두 예언자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언급하였다.<sup>1)</sup>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 이후 대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예언서’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12권의 책으로 다루어 왔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전개된 성서 연구의 주된 흐름은 통시적 연구였다. 즉 역사비평이 주를 이루면서 12예언서는 독립된 각각의 책으로 다루어졌다. 12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각각의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각 책으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노갈스키(J. D. Nogalski)<sup>2)</sup>와

\* Cornell University에서 고대 히브리어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 교수. [yoonyongyoo@hanmail.net](mailto:yoonyongyoo@hanmail.net).

1) 이후에 제4에스라 14:41과 탈무드(bBaba Batra 14b)에서도 12예언서를 24권의 정경 중 한 권으로 다룬다.

2) J. D. Nogalski, *The Book of the Twelve and Beyond: Collected Essays of James D. Nogalski*, SBLAIL 29 (Atlanta, GA: SBL Press, 2017); “Un et douze livres: la nature du processus rédactionnel et les implications de la présence de matériau culturel dans le Livre des XII Petits Prophètes”, J. D. Macchi, et al., eds., *Les recueils prophétiques de la Bible. Origines, milieux, et*

독일의 샤르트(A. Schart)<sup>3)</sup>의 주도하에 12예언서를 한 권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지난 30여 년간 진행되었다. 그 성과는 샤르트가 해마다 관련된 참고 문헌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sup>4)</sup> 우리나라에도 일부의 학자들이 이 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과가 증가하고 있다.<sup>5)</sup>

*contexte proche-oriental*, Le Monde de la Bible 64 (Genève: Labor et Fides, 2012), 361-386; “These Seventy Years: Intertextual Observations and Postulations on Jeremiah and the Twelve”, I. D. Wilson and D. V. Edelman, eds., *History, Memory, Hebrew Scriptures: A Festschrift for Ehud Ben Zvi*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5), 247-258; “Where Are the Prophets in the Book of the Twelve?”, M. J. Boda, M. H. Floyd, and C. M. Toffelmire, eds., *The Book of the Twelve and the New Form Criticism*, ANEM 10 (Atlanta, GA: SBL Press, 2015), 163-182; “The Book of the Twelve is not a Hypothesis”, E. Di Pede and D. Scaiola, eds., *The Book of the Twelve: One Book or Many? Metz Conference Proceedings, 5-7 November 2015*, FAT II/9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37-59; “Preexilic Portions of the Book of the Twelve: Early Collections and Composition Models”, H. J. Fabry, ed., *The Books of the Twelve Prophets: Minor Prophets and Major Theologies*, BETL 295 (Leuven: Peeters, 2018), 33-51; “Isaiah and the Twelve: Scrolls with Parallel Functions in the Corpus Propheticum”, G. Benzi, E. Di Pede, and D. Scaiola, eds., *Profeti maggiori e minori a confronto. Major and Minor Prophets Compared*, Nuova Biblioteca di Scienze Religiose 61 (Roma: Editrice LAS – Pubblicazioni dell’Università Pontificia Salesiana, 2019), 77-92; “The Comple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L. S. Tiemeyer and J. Wöhrle, eds., *The Book of the Twelve: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VTSup 184 (Leiden: Brill, 2020), 65-89.

- 3) A. Schart, “Putting the Eschatological Visions of Zechariah in Their Place: Malachi as a Hermeneutical Guide for the Last Sec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M. J. Boda and M. H. Floyd, eds., *Bringing Out the Treasure: Inner Biblical Allusion in Zechariah 9-14*, JSOTSup 37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333-343; “The First Sec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Hosea, Joel, Amos”, *Interpretation* 61 (2007), 138-152; “Das Zwölfprophetenbuch als redaktioneller Großeinheit”, *TLZ* 133 (2008), 227-246; “Totenstille und Endknall. Ein Beitrag zur Analyse der Soundscape des Zwölfprophetenbuchs”, C. Karrer-Grube, et al., eds., *Sprachen, Bilder, Klänge: Dimensionen der Theologie im Alten Testament und in seinem Umfeld. Festschrift für Rüdiger Bartelmus zu seinem 65. Geburtstag*, AOAT 359 (Münster: Ugarit-Verlag, 2009), 257-274; “The Jonah-Narrative Within the Book of the Twelve”, R. Albertz, J. D. Nogalski, and J. Wöhrle, 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Methodological Foundations, Redactional Processes, Historical Insights*, BZAW 433 (Berlin: De Gruyter, 2012), 109-128; “The Concluding Sections of the Writings of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A Form- and Redaction-Critical Study”, *PRSt* 43 (2016), 243-256; “Das D-Korpus, eine Vorstufe des Zwölfprophetenbuches in der Exilszeit”, H. J. Fabry, ed., *The Books of the Twelve Prophets: Minor Prophets and Major Theologies*, BETL 295 (Leuven: Peeters, 2018), 53-78; “Gottes Sinne im Zwölfprophetenbuch”, V. Bachmann, A. Schellenberg, and F. Ueberschaer, eds., *Menschsein in Weisheit und Freiheit. Festschrift für Thomas Krüger*, OBO 296 (Leuven: Peeters, 2022), 167-184.

4) <https://www.cjconroy.net/bib/twelve-studies.htm> (2022. 07. 04). 이 사이트에는 약 300편 이상의 관련된 저술 및 학술논문이 나온다.

- 5)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민족들,” 「구약논단」 25 (2019), 54-91;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나는 12예언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박경철, “12예언서 연구의 최근동향,” 「신학사상」 147 (2009), 7-36; 박경철, 『한 권

이 글은 ‘12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라는 방법론으로 ‘12예언서에서 스바냐의 정경적 위치와 그 함의’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스바냐는 12예언서 가운데 아홉째에 위치한다. 7세기 소예언서로 분류되어 나훔-하박국-스바냐의 순서로 나오며, 그 뒤에는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학개-스가랴-말라기가 나온다. 정경의 순서에 의하면 스바냐는 하박국 뒤, 학개 앞에 위치한다. 12예언서의 순서가 현재의 순서로 놓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연대에 따른 순서 배열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8세기 예언자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7세기 예언자인 나훔, 하박국, 스바냐, 포로 후기 예언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연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대에 의한 순서 배열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유다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예언자가 나타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포로 후기 이후에도 회복의 청사진을 가지고 여호와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연대에 의한 순서의 배열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지닌다. 요엘, 오바다, 요나 등의 연대 문제는 불확실하지만 대체로 포로 후기로 추측한다. 이는 연대에 의한 순서 배열의 원칙으로 설명이 어렵다. 아울러 같은 8세기 예언서 내에서도 아모스가 호세아보다는 앞서며, 7세기 예언서 내에서도 연대순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마소라 사본의 12예언서 순서는 칠십인역 및 사해사본과 순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칠십인역에 의하면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다,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순서이다. 사해사본 중 하나인 4QXII<sup>a</sup>에 의하면 요나가 마지막에 위치한다. 따라서 12예언서의 순서는 고정된 하나의 전승으로만 전해져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2예언서의 순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12예언서가 연대의 순서에 의하여 배열되었다는 주장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맞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확한 연대의 순서가 아니다. 연대에 의한 순서 배열 외의 다른 설명을 요구한다.

노갈스키는 12예언서의 배열에 대하여, 핵심어(catchword)<sup>6)</sup> 및 주제의 연결, 다섯 단계의 편집으로 인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

으로 읽는 구약성서,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책의 자리’(Sitz im Buch)로!; 구약성서, 그 최종형태의 새로운 신학적 의미』(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박경철, “12예언서의 최종형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3 (2017), 11-36.

6) ‘핵심어’로 번역된 catchword는 고대 경전의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예들 가운데 하나이다. 각 장이나 책 사이를 이어주는 단어나 주제를 가리킨다. 욕 3:16은 암 1:2와 연결되며, 암 9:12의 ‘에돔’은 이어서 나오는 오바다에서의 ‘에돔’으로 연결된다.

6세기의 신명기 역사가에 의하여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가 편집되었고, 둘째, 학개 및 스가랴 1-8장이 기록되고 두 수집물이 통합되었다. 셋째, 요엘, 오바댜, 나훔, 하박국, 말라기가 4세기 후반에 첨가되었다. 넷째, 스가랴 9-14장이 덧붙여졌다. 다섯째, 요나가 첨가되어 3세기 초에 12예언서가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12예언서의 형성에 관하여 노갈스키는 편집 비평이라는 방법론을 따르며, 책의 순서에 대하여는 문학적 연관이라는 방법을 따른다. 노갈스키의 방법론은 ‘12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에 많은 공헌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12예언서를 신학적 주제가 서로 연결된 한 권의 통일된 책으로 다루려는 시도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창대는 ‘돌아오라, 신정론, 쉘마, 지혜, 창조, 언약 갱신, 하나님의 영, 시온과 성전, 여호와와 날과 남은 자, 하나님의 자비’ 등의 주제가 12예언서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한다.<sup>8)</sup> 하우스(P. R. House)는 12예언서를 예언이 내러티브화된 장르로 보고, 언약과 우주적인 죄(호세아-미가), 언약과 우주적인 심판(나훔-스바냐), 회복에의 희망(학개-말라기)의 구조로 파악한다. 아울러 12예언서를 프라이(N. Frye)의 U 모양의 구도로 파악한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여호와, 예언자, 반역자 및 남은 자로서의 이스라엘, 이방 나라이며 그들의 특징들을 풀이하는 해석을 선택한다.<sup>9)</sup> 하우스의 해석은 흥미롭지만, 예언 문학의 본질을 고려할 때 내러티브로 읽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여호와와 예언자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이 글은 위에서 소개한 ‘12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라는 최근의 연구 성과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스바냐서를 조명하고자 한다. 7세기 소예언서 가운데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640-609년)이다. 요시야 시대 가운데서도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이 유력하다. 따라서 622년이 스바냐의 연대이다. 612년을 전후로 한 나훔과 605년경의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박국보다 앞선다. 그러나 스바냐는 주전 7세기 세 권의 책 가운데 첫째가 아니라 셋째에 위치한다. 연대에 의한 순서 배열 외의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스바냐와 뒤이어 나오는 학개 사이에는 ‘유다 멸망 및 포로기’라는 역사적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글은 스바냐의 현재 위치를 통해 유다 멸망 및 포로기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함의를 찾고자 한다.

7) J. D.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117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Redactional Processe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8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8)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49-65.

9) P. R. House, *The Unity of the Twelv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스위니(M. A. Sweeney)는 스바냐를 바벨론 포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sup>10)</sup> 노갈스키는 12예언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에 관하여 바벨론 포로기 신명기 사가에 의하여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네 권의 책은 ‘débar YHWH’라는 공통된 장르를 가지며, 이스라엘 및 유다 왕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sup>11)</sup> 하지만 편집역사에 근거한 12예언서의 연구방법론은 개연성에 기반을 두므로 그 근거가 매우 불안정하다. 스바냐의 표제(1:1)에 의하면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의 인물이지만, 12예언서의 최종형태는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에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2)</sup>

이 글에서는 스바냐의 구조를 차일즈(B. S. Childs)의 제안에 따라 3단락으로 구분한다. 유다에 대한 심판 위협(1:2-2:3), 이방 나라에 대한 위협(2:4-3:8), 구원 약속(3:9-20).<sup>13)</sup> 스바냐의 구조를 3분법으로 읽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며 여전히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sup>14)</sup> 12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경비평(canonical criticism)과 본문 상호 간의 연구(intertextual approach)이다. 정경비평은 최종본문을 형성한 정경 공동체의 신학을 찾는 작업이다. 12예언서를 한 권으로 형성하였던 정경 공동체는 12예언서를 그 당시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페르시아 시대 유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12예언서

10) M.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2, Berit Olam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2000), 493.

11) J. D.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278-280. 노갈스키의 주장을 이어받아 샤프트는 호세아와 아모스는 포로 이전에 이미 연결되었으며, 미가와 스바냐가 포로기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A. Scharf, *Die Entstehung des Zwölfprophetenbuchs*, 46. 이 주제는 최근에 더 정교하게 전개된다. 다음을 보라. N. R. Werse, *Reconsidering the Book of the Four: The Shaping of Hosea, Amos, Micah, and Zephaniah as an Early Prophetic Collection*, BZAW 517 (Berlin: De Gruyter, 2019). 이 글에서 위스(N. R. Werse)는 4권의 편집이 포로 후기의 최종 편집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12) 이 글은 스바냐의 형성에 관하여 편집의 단계를 주장하는 편집비평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재구성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스바냐에 관한 편집 비평적 연구의 대표자는 하드지예브(T. S. Hadjiev)이다. 그는 스바냐의 본문이 포로 이전(1:2-2:3, 회개의 메시지), 포로기(1:2-3:8, 멸망에 관한 설명), 포로 이후(구원 신학, 구원의 약속)의 3단계로 편집되었다고 본다. T. S. Hadjiev, “The Theological Transformations of Zephaniah’s Proclamation of Doom”, *ZAW* 126:4 (2014), 506-520.

13)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458.

14) N. R. Werse, “Reconsidering the Problematic Tripartite Structure of Zephaniah,” *ZAW* 130:4 (2018), 571-585. 이 글에서 위스는 스바냐에서 3분법으로 된 구조는 이방 나라와 유다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내어 심판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내에서 스바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본문 상호 간의 연구는 스바냐와 스바냐 외의 본문과의 관계를 찾아 해석하고 스바냐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시작하는 말(1장)과 맺는말(5장) 이외에 크게 3단락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7세기 소예언서가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3장에서는 7세기 소예언서 중 연대순으로 첫 번째 책인 스바냐가 세 번째에 놓인 것은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메시지 때문임을 밝히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포로 상황과 관련해 의미를 드러낸다. 4장에서는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에게 스바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핀다.

## 2. 7세기 소예언서와 스바냐의 위치

12예언서 가운데 주전 7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책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이다. 책의 순서와 연대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하지만 각 책의 본문의 편집사까지 고려하여 연대를 측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경우 책의 연대가 아니라 본문의 전승 과정에 관해 연대를 논의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정경을 포함한 정경 공동체의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 한 권으로서의 12예언서 입장에서 포로 후기 정경 공동체는 각 책의 연대를 각 책 내에서 식별 가능한 표시에 따라 이해하고 분류하고 편집하였다. 나훔의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연대는 앗시리아 앗수르바니팔(668-627년)의 노아몬(테베) 정복(663년, 나 3:8)에서 바벨론과 메대의 앗시리아 니스웨 멸망(612년, 나 3:18-19) 사이가 된다. 그러나 니스웨의 멸망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사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612년 전후가 나훔의 배경이 되는 연대이다.<sup>15)</sup>

하박국의 연대는 불의가 만연하였던 예루살렘(1:2-4)과 갈대아 사람(1:6)을 언급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6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선언한다. ‘갈대아’라는 말은 신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고 구성한 민족을 가리킨다. 앗수르바니팔이 죽은 후 1년 뒤 626년 나보폴라사르는 바벨론의 독립을 선포한다. 세력을 확장한 후 612년 메대와 연합한 뒤에 앗시리아까지 멸망시켰다. 605년 나보폴라사르가 죽은 뒤

15) M. A. Sweeney, “Concerning the Structure and Generic Character of the Book of Nahum,” *ZAW* 104 (1992), 375. 일부 학자는 메대가 니스웨를 함락했던 주전 625년, 혹은 앗수르바니팔이 죽었던 627년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학자는 612년 전후를 나훔의 연대로 본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등극하여 이집트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여 패배시키고 신바벨론 제국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하박국 1:6-11은 신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힘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2세의 힘과 전쟁의 잔혹함을 잘 설명한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하자,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인다. 따라서 하박국의 연대는 주전 605년 전후가 가장 적절하다.

스바냐 1:1에 의하면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였으며, 그의 고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로 나온다. 스바냐만의 특징인 긴 족보는 그가 왕족이었음을 알려준다. 스바냐의 족보가 히스기야 왕과 연결된 것은 스바냐의 개혁적 메시지가 히스기야의 개혁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스바냐는 므낫세 시절에 친앗시리아 정책 아래 시행되었던 갖가지 우상숭배에 대하여 비판한다. 그러므로 왕족도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선포한다(슥 1:8). 요시야는 640년 8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재위 18년 되던 622년 율법 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 책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609년 므깃도 전투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1:1이 제시한 대로 스바냐의 활동 기간이 요시야 시대라면 640-609년이다. 표제를 제외하고 스바냐 내에서 연도를 추측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 스바냐의 표제에 근거한 연대는 요시야 종교개혁(622년) 이전(640-622년)과 이후(622-609년)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sup>16)</sup> 요시야 종교개혁 이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스바냐에 나오는 이방 종교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마림(1:4), 일월성신 숭배(1:5)에 근거한다. 그러한 이방 종교 제의는 요시야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 철거되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그마림)을 폐하며 또 바알과 별 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왕하 23:5).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남아있는 바알’(1:4)에 근거하여,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스바냐가 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위니는 스바냐에 신명기 개혁의 구체적인 상벌조항이 나오지 않아 요시야 종교개혁 이전에 스바냐가 종교개혁을 외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끌어내는 공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sup>17)</sup> 스바냐는 622년 이전을 배경으로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다. 편집

16) 역사적 스바냐의 연대는 요시야 시대 외에도 여호야김(609-598년) 시대까지 거론된다. 본문의 최종 형성은 포로기(586-539년), 포로 이후(539-300년) 시대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하지만 학자들의 대부분은 스바냐의 연대를 요시야 종교개혁 이전이라고 생각한다. R. L. Smith, 『미가-말라기』, WBC 32 (서울: 솔로몬, 2001), 179-181.

17) A. C. Hagedorn, “When did Zephaniah Become a Supporter of Josiah’s Reform”, *The Journal*

비평적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요시야의 통치기인 640-609년 가운데 스바냐의 연대를 622년 이후로 판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sup>18)</sup>

따라서 7세기 소예언서를 연대순으로 배열하면 스바냐(622년)-나훔(612년)-하박국(605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경의 순서는 마소라와 칠십인역 모두 나훔-하박국-스바냐의 순서로 나온다. 그 이유는 12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 3. 스바냐와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

12예언서는 앗시리아 제국의 팽창시대에서 바벨론 시대, 포로기,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는 8세기 예언자로 앗시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sup>19)</sup> 마지막 세 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명백하게 페르시아 시대이다. 필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유다 멸망 및 바벨론 포로 시대를 암시하는 예언의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12예언서 가운데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은 없다. 하지만 12예언서 가운데 7세기 예언서가 유다 멸망 및 바벨론 포로 시대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7세기 예언서 세 권 가운데 나훔은 앗시리아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등장을 안내하는 책이다. 나훔에 등장하는 적들은 여호와가 앗시리아에게 복수하기 위해 보낸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 하박국은 갈대아의 등장을 알려주며, 스바냐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시대를 암시하는 책이라고 주장한다. 주전 7세기는 위기의 시대였다. 위기로 인한 시련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원천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핵심을 만날 수도 있다.<sup>20)</sup> 스바냐는 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스바냐(622년)와 학개(520년) 사이에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622-598년),

*of Theological Studies* 62:2 (2011), 453-75.

18) C. Begg, "The Non-mention of Zephaniah, Nahum, and Habakkuk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N* 38/39 (1987), 20; W. L. Holladay, "Reading Zephaniah with a Concordance: Suggestions for a Redaction History", *JBL* 120:4 (2001), 672.

19) 에버슨은 '12예언서의 역사신학'이라고 부른다. 그는 호세아에서 미가까지의 6권을 8세기 예언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자들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연대가 논쟁적인 요엘, 오바댜, 요나는 제외한다. 다음을 보라. J. A. Everson, "The Canonical Location of Habakkuk",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de Gruyter, 2003), 166-67.

20) M. Oeming, "Social Justice and Divine Reighteousness in the Old Testament Wisdom Traditions", 「성경원문연구」 42 (2018.4), 122.

바벨론의 침략(598-587년)과 유다의 멸망(586년), 포로기(586-539년), 귀환 및 정착(539-520년)이라는 긴 역사적 공백이 존재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정황을 연결해 주는 가장 적합한 책은 위치상 스바냐이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유다 멸망 및 포로 전의 마지막 책이며, 포로 이후 귀환한 귀환 공동체에서 활동하였던 학개 앞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2예언서를 유다의 역사와 관련해 읽는 독자는 스바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며 읽게 된다.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연구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다. 역사적, 사회적 정황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유다 및 이스라엘의 정체성, 신학의 변화에 미친 영향 등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21)</sup> 하보르손-테일러(M. A. Halvorson-Taylor)는 ‘포로’란 단순히 지역적인 이주가 아니라 신의 분노와 신으로부터의 분리에 수반되는 ‘죽음, 거세, 기아, 질병, 허무’ 등과 관련되며, 다양한 은유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22)</sup> 즉 포로는 신의 분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회복 또한 신의 분노가 끝나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포로 후기의 스가라에도 나온다. “여호와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슥 1:12).

### 3.1. 여호와와 날

스바냐의 가장 큰 신학적 주제는 ‘여호와와 분노의 날’과 ‘심판’이다. 1:7-2:3은 ‘여호와와 분노의 날’ 주제를 다룬다. 스바냐에는 ‘여호와와 날’(1:7, 14), ‘여호와와 희생의 날’(1:8) ‘여호와와 큰 날’(1:14), ‘여호와와 분노의 날’(1:18; 2:3)이 나온다. ‘여호와와 날’을 의미하면서 ‘그날’(1:9, 10,

21) L. L. Grabbe, ed., *Leading Captivity Captive: 'The Exile' as History and Ideology*, JSOTS 27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G. N. Knoppers, et al., eds., *Exile and Restoration Revisited: Essays on the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in Memory of Peter R. Ackroyd* (London: T & T Clark, 2009); B. E. Kelle, et al., eds., *Interpreting Exile: Displacement and Deportation in Biblical and Modern Contexts* (Atlanta, GA: SBL, 2011); J. Ahn and J. Middlemas, eds., *By the Irrigation Canals of Babylon: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Exile*, LHBOTS 526 (London: T & T Clark, 2012); M. J. Boda, et al., eds., *The Prophets Speak on Forced Migration* (Atlanta, GA: SBL, 2015).

22) M. A. Halvorson-Taylor, *Enduring Exile: The Metaphorization of Exile in the Hebrew Bible* (Leiden/Boston: Brill, 2011), 21.

15; 3:16) 혹은 ‘날’(1:15(5x), 16; 2:2)로 나오기도 한다.

‘여호와와의 날’은 여호와가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승리자로 등극하는 날을 가리킨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사 2:17).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와의 날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극하는 기쁨과 구원과 축복의 날로 알려져 왔다. 그 개념은 12예언서의 아모스에 의하여 역전된다. 아모스는 여호와와의 날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날로 개념을 뒤집어 선포한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암 5:18).

스바냐의 서론(1:2-6)에서 하나님은 죄를 먼저 열거하기 전에 창조세계에 대한 전적인 파멸을 선포한다(1:2-3).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방신 숭배에 몰두하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 대한 진멸(1:4)을 선언한다. 즉 스바냐의 서론은 여호와와의 심판선언으로 시작한다. 스바냐에 나오는 핵심적인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을 선포하기 전 심판의 범위와 이유를 설명한다. 심판의 범위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며, 심판의 이유는 므낫세 때에 도입된 이방 종교의 관습(왕하 21:2-7) 때문이다. 1:4-6에 묘사된 이방신 숭배와 제의는 요시아 종교개혁(왕하 23:4-6)에서 척결되었다. 따라서 스바냐는 요시아 종교개혁의 신학적 근거와 동기를 제시한다.

여호와와의 강력한 심판 이후, 스바냐 1:7-2:3에는 파멸을 나타내는 심판의 구체적인 형태로 여호와와의 날이 집중적으로 설명된다. 그 의미는 여호와와의 날(1:7) → 여호와와의 큰 날(1:14) →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1:18; 2:3)로 강화되어 나온다. 스바냐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날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와의 분노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다.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은 여호와와의 희생제물을 잡는 날로 묘사되며 그 대상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1:8),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1:9)이다. 그 범위는 어문, 제 2구역, 작은 산, 막데스 등이다. 심판의 방법은 힘이 강한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다. 재물이 노략되며 집이 황폐해질 것이며(1:13),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날(1:14)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1:16)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1:17).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와의 감정은 ‘분노’(1:15, 18, 2:2, 3) 및 ‘질투’(1:18)이다. 여호와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은 스바냐 3:8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오며 신명기

29:20의 ‘여호와와 분노와 질투의 불’과 관련되어 있다. 여호와와 날은 스바냐를 제외한 12예언서의 다른 책인 요엘(1:15; 2:1, 11; 3:14), 아모스(5:18, 20), 스가랴(14:1)에도 나온다. 아모스에서 여호와와 날 심판선언은 의미가 있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바냐의 선언도 마찬가지로 실감이 나는 메시지였음이 틀림없었다. 여호와와 심판은 적들의 침략에 의한 멸망을 암시한다. 스바냐 1:14-18에 ‘날’이 10회 나오는데, 이는 오바다 11-14와 같다. 오바다에서 ‘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 따라서 스바냐에서의 ‘날, 여호와와 날/큰 날, 여호와와 분노의 날, 여호와와 질투의 불’은 여호와가 적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나타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바냐의 여호와와 날은 587년 유다 멸망에 대한 암시로 기능한다.<sup>23)</sup>

### 3.2. 포로를 위한 삶의 메시지

포로를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glh(포로가 되다)와 šbh(사로잡히다)이다. 스바냐에서는 두 번째 단어인 šbh를 어근으로 하는 표현이 2:7과 3:20에 나온다. 2:7c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sup>24)</sup> 3:20c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사로잡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를 암시하며 스바냐는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12예언서 내에서 유사한 표현은 아모스 9:14a에 나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wəšābtī ’ēt šēbūt). 이 표현은 아모스의 구원 신탁으로 포로 후기에 첨가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전형적인 포로 이전의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25)</sup> 아모스의 이 신탁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것으로,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이 그렸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을 전하는 메시지의 근거로 기능한다(겔 37:15-23). 따라서 스바냐에서 2회 나오는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는 표현은 포로로 잡힐

23) J. D. Nogalski, “Recurring Themes in the Book of the Twelve”, *Interpretation* 61 (2007), 127.

24) ‘사로잡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소라의 커티브(Ketiv)에서 šbwtm이지만 커레(Qere)에서는 šbytm이다. 정확한 의미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칠십인역, 탈군, 페쉬타, 불가타역 모두 여호와가 유다의 포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읽고 있다. M. A. Sweeney, *Zephaniah*, 131-132.

25) 이 표현은 아모스와 동시대인 주전 8세기의 아람어 본문인 Sefire 비문에서도 나온다. “이제 신들이 나의 아버지의 집의 사로잡힘을 되돌렸다(šybt...hšbw).” 따라서 포로 이전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을 보라. S. Paul, *Amo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1), 294.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포로에서 되돌릴 것이라는 뜻이다. 포로라는 단어가 포로 이후의 책 학개 바로 앞에 놓인 스바냐에 2번 나오므로써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가 미래의 포로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와 의의 날을 위한 심판과 포로, 포로에서의 회복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서의 삶의 극복을 위한 메시지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포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내한다. 1:2-18에서 여호와와 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한 다음 스바냐는 회복을 위한 권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첫째, 2:1-3이다. 핵심적인 권고는 2:3에 나오는 ‘찾으라’(히브리어 *bqš*)로 3번 나온다. 2:3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와 의의(*mišpāt*)를 행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의(*šedeq*)를 찾으라.  
겸손(*‘ānāwāh*)을 찾으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와 의의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다.

2:3에서 여호와와 의의의 날에 숨겨질 방법은 여호와, 정의와 의, 겸손을 찾는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메시지는 아모스 5:4-6에 3회 나온다. 아모스에 나오는 ‘찾으라’는 히브리어는 *drš*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첫 요소로 나온다. 정의와 의에 대한 강조는 아모스에서 시작하여 12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로 기능한다(암 5:7, 15, 24; 6:12; 미 3:1, 8, 9; 6:8; 함 1:4; 말 2:17 등). 하박국 1:4에서 ‘정의’(*mišpāt*)는 ‘율법’과 평행을 이룬다. 정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박국은 여호와와 의의의 실현에 의문을 제기한다(함 1:2-4). 이에 대하여 여호와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함 1:6)는 말로 대응한다. 즉 여호와는 유다 사회의 무너진 정의에 대하여 갈대아 사람을 통해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박국에 이어 스바냐는 여호와에 의한 심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심판의 날에 숨겨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의와 의를 찾으라고 권고한다. ‘겸손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스바냐에 처음 나온다. ‘겸손’의 히브리어 *‘ānāwāh*는 ‘괴롭다, 억눌리다’라는 단어 *‘ānāh*에서 파생되었다. 억눌리고 괴로운 상태의 마음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경건한 마음이나 영을 나타낸다(시 9:12). 이것은 미래에 도래할 포로 상태에서 가지게 될 처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겸손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재앙과 고통의 순간에 인간의 지혜보다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권고이다. 포로를 위해 준비하라는 메시지이다.

둘째, 3:1-6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선포와 포로의 암시 후 3:7에서 결론으로 회고적인 권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은 ‘나를 경외하고 교훈

(mûsâr)을 받으라'이다. 히브리어 mûsâr는 모진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가리킨다. 여호와와 명령했지만, 예루살렘은 그것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다(3:2). 따라서 3:8에서 '일어나 벌할 때까지<sup>26)</sup> 나를 기다리라'라고 명령한다. '기다리라'의 히브리어는 hkh로 하박국 2:3에서도 나온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묵시가 역사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였다.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라는 여호와와 메시지에 대해 하박국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라는 결정이 바뀌지는 않았다. 여호와와 묵시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므로, 믿고 기다림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하박국의 이 메시지는 앞으로 닥칠 유다의 멸망과 포로라는 암울한 역사적 현실을 준비하는 신앙의 안내로 읽을 수 있다. 기다림을 강조하는 하박국의 메시지는 스바냐 3:8에서 다시 나와 멸망과 포로의 때가 가까웠고 곧 실현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박국에 이어 스바냐에서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이어진다. 그 기다림은 여호와가 이루게 될 심판과 포로와 회복의 시간이다.

셋째,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서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3:12a) '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ānîro 2:3의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ānāwāh와 어원상 연결된다. 이 단어는 '가난'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가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dāl은 사회 경제적 의미에서 '낮은, 가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포로 생활로 인하여 겪게 될 사회 경제적 의미의 가난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낮고 비천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일레는 '곤고한 자'를 '사회적 위기와 핍박, 불의로 인하여 억울함을 경험하는 가난한 자'라고 정의한다.<sup>27)</sup> 코스(A. Causse)는 이들을 "가난한

26) '일어나 벌할 때까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lēyôm qûmî lē'ad로 '내가 일어나 희생물 (prey, booty)로 삼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ad가 '희생물, 약탈물'을 의미하는 경우는 미쉬나 히브리어, 유대교 아람어에 나타나며 창 49:27; 사 33:23에서도 나온다. HALOT, 786을 보라. 누가 여호와와 희생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명확하지 않다. 희생물의 대상은 3:1-7에 묘사된 예루살렘과 3:8b에 나오는 이방의 나라와 왕국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번역과 일부의 학자는 히브리어 'ad(희생물)를 'ād(중인)로 읽는다 (내가 일어나 중인이 될 때). 하지만 본문의 전후 맥락에서 보아 이 단어를 수정할 필요 없이 마소라 사본 그대로 읽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7) 이일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연구", 『성경원문연구』 50 (2022.4), 41.

자들의 공동체가 특정한 이념과 전통을 소유하고 예배와 영감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형제 공동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28)</sup> 여호와와는 그러한 자들을 남겨 둘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 메시지는 2:3의 '여호와를 찾으라'는 명령의 이유를 제공한다. 3:12의 '남겨두리니'라는 동사를 통해 남은 자는 3:13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šē'ērīt yiśrā'ēl)로 나온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예언서에 주로 나온다(사 10:20, 21, 22; 11:11, 16; 37:4, 32; 렘 23:3; 31:7 등). 스바냐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3:13에서 남은 자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정화과정을 거친 후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스바냐에서 남은 자는 블레셋 지역 해안가의 땅(2:7), 요단 강 건너편 모압과 암몬의 땅(2:9)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이 단어는 학개에서 '남은 백성'(šē'ērīt hā'am)으로 3회(1:12, 14; 2:2) 나온다. 이들은 이사야 전통에서 시작된 남은 자 신학을 반영하며, 바벨론 포로 후 살아남아 귀환한 자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할 임무를 지닌 자들이다. 스바냐에서 약속된 남은 자들은 유다 멸망과 포로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귀환 후 학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이다.

### 3.3. 이방 나라와 스바냐

스바냐의 핵심적인 단락의 가운데 위치한 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이다(2:4-3:8). 이 단락은 이방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2:4-15;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앗시리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나온다(3:1-8). 이러한 형식은 이방 나라에 관한 신탁을 차례대로 선언한 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등장시켜 심판에 포함한 아모스와 유사하다(암 1:3-2:16). 2:4-7에 등장하는 지역은 크게 블레셋이다.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해안가의 그렛 족속과 가나안인들을 쳐서 주민이 사라지게 하리라고 선포한다. 블레셋 지역의 도시 국가는 앗시리아의 침략으로 주전 8세기 후반 대부분 멸망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 앗시리아를 지원하였다.<sup>29)</sup> 사라진 블레셋 땅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돌아와 차지할 것이라며 목가적인 풍경을 그리며 약속한다(습 2:6-7).

28) A. Causse, *Les "Pauvres" d'Israel* (Strausbourg: Librairie Istra, 1922), 81; 이일래, "개인 탄원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연구", 39에서 재인용.

29) 얄 야브네와 텔 미크네 지역의 고고학 발굴 결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이 밝혀졌다. M.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2, 515.

블레셋 지역이 유다의 서쪽인 반면, 모압과 암몬 지역은 유다의 동쪽 지역이다. 모압과 암몬의 죄는 유다에 대한 비방과 그들의 경계에 대한 교만이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할 것이며,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슥 2:8). 모압과 암몬은 앗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그 지역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이 원주민과 같이 살고 있었다. 스바냐 2:8의 메시지는 주전 7세기의 상황을 반영하며 미래를 그리고 있다. 2:11에서 여호와와는 이방 나라를 두렵게 하고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여 이방의 각 해변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보편주의적 신학을 선포한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은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신학이다. 2:11의 메시지는 전후 관계로 보아 맥락의 연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2:11은 이방 나라에 대한 네 개의 신탁(슥 2:14-3:8) 가운데 위치하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까지 선포한다.<sup>30)</sup> 이것은 3:9의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는 보편주의 신학의 선포와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구스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앗시리아의 니느웨는 황폐하여 사막같이 마르게 될 것이라 선포한다. 그 땅은 각종 짐승의 거주지가 되고 지나가는 자가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이라 선포한다. 앗시리아의 멸망은 이 신탁의 절정에 해당한다. 스바냐 당시 앗시리아는 유다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였다. 완벽한 자축 및 국방을 자랑하였던 앗시리아(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sup>31)</sup> 슥 2:15)도 여호와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선포한다.

주전 8세기에 문서 예언자가 등극한 것은 앗시리아 제국의 등장으로 인한 신학적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예언자들은 복잡한 이방 나라와의 국제적인 질서에 편입되어 국제정치와 힘의 역학관계를 유지하면서 여호와와 뜻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 애썼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제국주의 국가의 질서 아래 국가의 흥망성쇠 과정을 거쳤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앗시리아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스바냐 시대의 국제 관계 속에서 여호와와는 이방 나라도 여호와와 주권 아래 있으며, 유다처럼 여호와와 심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30) K. L. Barker and W.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8), 461-62.

31) 이 표현은 사 45:5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사 45:5a)와 유사하다. 이 구절과 비교한다면, 앗시리아는 자신을 자축 기능을 가진 신으로 선언한 것이다.

주전 7세기의 예언서에서 이방 나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훔에서 여호와와 전사로 나타나, 앗시리아 왕과 대적하고 그를 쳐서 그가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니느웨마저 처절하게 무너뜨렸다. 그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죽었다. 하박국과 스바냐의 관점에서 보아 앗시리아에 대한 나훔의 멸망 선언은 앗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 또한 여호와와 심판에서 피하지 못할 것을 나타낸다. 이는 주전 7세기 스바냐와 동시대였던 예레미야에 의하여 선포된다. “그 주위에서 고향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렘 50:15). 바벨론의 멸망을 여호와와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 50장의 ‘보복’의 히브리어는 *nqm*이며 이는 나훔 1:2에 세 번 반복된다. 바벨론의 멸망 또한 앗시리아의 멸망처럼 여호와와 보복이라는 심판 선언이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후 여호와께 항거하지만, 여호와와 목시를 받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이어서 하박국은 ‘화있을 진저’의 재앙신탁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모호한 형태로 이방 나라의 여러 가지 행태를 고발하며(합 2:5, 7, 8, 10, 12-13, 15-17)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한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었도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합 2:8). 이 재앙신탁의 일반적인 원칙은 불의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가들은 이 신탁에 나오는 모호한 국가를 바벨론으로 추측한다.<sup>32)</sup> 스바냐는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중 앗시리아를 마지막에 배치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유형(type)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바벨론 역시 앗시리아처럼 여호와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암시한다. 스바냐는 이방 나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한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습 3:8b). 아울러 하박국도 바벨론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다가올 적들의 침략이 재앙이 될 것이지만 참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한다(합 3:16). 스바냐에서 이방 나라는 유다와 마찬가지로 회복의 대상으로도 나온다(3:9-11).

32) K. L. Barker and W.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327.

#### 4. 포로 후기 정경 공동체를 위한 함의

오브라이언(J. M. O'Brien)은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의 메시지를 스가라의 '이전 선지자들'에 해당하며, 호세아에서 스바냐를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스가라의 서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페르시아 시대에 스가라가 이전 선지자들의 큰 그림을 구상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대의 독자들을 초대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페르시아 시대의 스가라의 관점에서 12예언서를 읽을 때 한 권으로 통합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스가라의 렌즈를 통하여 다른 예언자를 읽는다. 그 결과 그는 스바냐를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 메시지의 결론으로 주장한다.<sup>33)</sup> 오브라이언의 방법론은 12예언서의 최종관점을 스가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12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의 한 예시를 제공한다. 하지만 스가라도 시공간에 제한된 예언자이다. 스가라가 12예언서의 형성과 관련된 인물일 수는 있어도 최종본문의 편집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스가라는 이전의 12예언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폭넓게 인용하며 당시 사회의 이슈를 중심으로 예언을 선포한다. 스가라로 특정하기보다는 12예언서의 최종형태에서 스바냐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당위성이 더 크다.

‘여호와와 날’은 12예언서 가운데 스바냐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온다. 스바냐에서 여호와와 날은 주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가리킨다. 스가라에서 여호와와 날은 유다의 조상들에 진노하였지만 내렸던 재앙이 끝났으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한다(슥 9:14-15). 따라서 페르시아 시대의 관점에서 여호와와 날은 스가라 14장에 묘사된다(슥 14:1-15). 그날은 종말의 때로 여호와가 나와서 이방 나라들을 친 후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다. 학개에서도 여호와와 날은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엮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겠다고 선포한다(학 2:22). 학개와 스가라에 나타난 여호와와 날은 이방인에게는 심판을,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공동체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날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스바냐에 나타난 여호와와 날은 명백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가리킨다.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에서 심판과 멸망을 나타내는 여호와와 날의 대상은 이방 나라들이다.

33) J. M. O'Brien, "Nahum-Habakkuk-Zephaniah: Reading the 'Former Prophets' in the Persian Period," *Interpretation* 61 (2007), 168-183. 그 외에 스바냐를 페르시아 시대를 위한 작품으로 해석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다. E. B.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BZAW 198 (Berlin: de Gruyter, 1991); R. Mack, *Neo-Assyrian Prophecy and the Hebrew Bible: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Piscataway, NJ: Gorgias, 2011), 326-39.

페르시아 시대의 정경 공동체는 ‘여호와의 날’이 가졌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적용하였다. ‘여호와의 날’은 원래 기쁨과 구원의 날이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그 개념을 뒤집어 심판과 멸망의 날로 만들었다. 그 개념은 스바냐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고, 예언자의 선포대로 이루어져 유다 백성은 멸망과 포로의 삶을 거쳤다.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는 매우 미약하였지만, 여호와의 날이 내포했던 구원의 개념을 가져와 회복과 구원을 꿈꾸고 있다. 여호와가 왕으로 등극하는 종말의 때를 여호와의 날로 선포한다(슥 14:9, 13-14). 그날은 이미 스바냐 시대에 선포된 노래에 이미 예언된 것(슥 3:14-20)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분별될 것이다(말 3:18).

스바냐에 의해 선포되었던 포로 시대를 위한 메시지는 페르시아 시대의 정경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은 그 메시지를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동시대의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다. 귀환하였지만 극적인 변화를 꿈꿀 수 없었다. 스바냐 시대에 포로 시대를 염두에 두고 선포되었던 메시지들은 페르시아 시대에도 시대를 넘어선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여호와, 정의와 의, 겸손을 찾으라’는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는 남은 자를 자처했던 포로 후기 여전히 포로 가운데 놓인 정경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윤리적, 영적, 신학적 유산으로 기능하였다. 포로 시대를 준비하는 메시지였지만, 정경 공동체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 때의 메시지는 여전히 정경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였다.

스바냐에 나타난 이방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포로 후기 유다의 종말론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방 나라는 여호와의 심판대상이 되고 유다는 회복된다. 스바냐에 나오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 모두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정경 공동체에 함의를 지닌다. 여호와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슥 3:8)라고 선포하였다. 이 메시지는 종말의 때에 벌어지게 될 이방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설명한다(슥 14:1-15). 스바냐 3:8에서 심판 후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어 이방 나라가 여호와에게 절대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호와가 이방 나라를 심판한 후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오게 된다.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홀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슥 3:9-10).

스바냐의 이 메시지는 종말의 때 이방 나라 중의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행진을 오는 모습을 그린 스가랴 14:16-21의 모습을 기대하는 역할을 한다. 예루살렘이 새로운 국제 제의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스바냐가 그린다.<sup>34)</sup>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나서는 평화로운 모습은 미가 4:1-5에 이미 잘 묘사되어 있다. 스바냐는 미가가 그리는 평화로운 모습을 이어받아 스가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페르시아 시대의 정경 공동체는 이방 사람과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는 미가와 스바냐의 메시지를 자신들을 위해 선포한 메시지로 수용했을 것이다. 스바냐가 선포한 심판과 회복의 패러다임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같이 적용된다. 그 패러다임은 포로 후기 유다 정경 공동체의 예언적 상상력에도 수용되었고 스가랴(12-14장)와 말라기(3:1-3; 4:1-3)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5. 맺는말

스바냐는 12예언서 가운데 9번째 위치하여 호세아부터 스바냐에 이르기까지의 포로 이전 왕조 시대의 역사를 마무리하며, 10번째 책인 페르시아 시대의 학개를 연결해준다. 페르시아 시대는 주전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시작된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스바냐는 왕조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재앙인 바벨론 포로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스바냐 자체는 587년 사건과 바벨론 포로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 사건들을 예시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안내한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가 지키다, 숨기다’이다. 스바냐가 알려준 여호와가 숨기는 사람은 ‘겸손한 자, 곤고하고 가난한 자’이다. 억눌리고 고통을 경험한 자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승화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마음이 가난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정경

34) N. R. Werse, “Realigning the Cosmos: The Intertextual Image of Judgment and Restoration in Zephaniah”, *JSOT* 45:1 (2020), 111-127.

공동체는 스바냐가 제시한 맑은 윤리적 교훈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회복되는 세상을 그리는 청사진을 그들을 위한 것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였다. 그것은 지리적, 정치적, 민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서의 말씀이 된다.

<주제어>(Keywords)

12예언서, 스바냐, 포로기, 여호와의 날, 이방 나라들.

The Book of the Twelve, Zephaniah, Exile, the Day of Yahweh, Foreign Nations.

(투고 일자: 2022년 7월 21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4일)

## &lt;참고문헌&gt;(References)

-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 민족들”, 「구약논단」 25 (2019), 54-91.
-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나는 12 예언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 박경철, “12예언서 연구의 최근동향”, 「신학사상」 147 (2009), 7-36.
- 박경철, “12예언서의 최종형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3 (2017), 11-36.
- 박경철, 『한 권으로 읽는 구약성서,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책의 자리’(Sitz im Buch)로!: 구약성서, 그 최종형태의 새로운 신학적 의미』,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 이일례,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연구”, 「성경원문연구」 50 (2022.4), 37-59.
- Smith, R. L, 『미가-말라기』, WBC 32, 서울: 솔로몬, 2001.
- Ahn, J. and Middlemas, J., eds., *By the Irrigation Canals of Babylon: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Exile*, LHBOTS 526, London: T & T Clark, 2012.
- Barker, K. L.,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B,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9.
- Begg, C., “The Non-mention of Zephaniah, Nahum, and Habakkuk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N* 38/39 (1987), 19-25.
- Boda, M. J., et al., eds., *The Prophets Speak on Forced Migration*, Atlanta, GA: SBL, 2015.
- Causse, A., *Les “Pauvres” d’ Israel*, Strausbourg: Librarie Istra, 1922.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Everson, J. A., “The Canonical Location of Habakkuk”,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de Gruyter, 2003, 165-174.
- Floyd, M. H., *Minor Prophets Part 2*, FOTL 22, Grand Rapids, MI: Eerdmans, 2000.
- Grabbe, L. L., ed., *Leading Captivity Captive: ‘The Exile’ as History and Ideology*, JSOTS 27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Haak, R. D., *Habakkuk*, VTS 44, Leiden: E. J. Brill, 1992.
- Hadjiev, T. S., “The Theological Transformations of Zephaniah’s Proclamation of Doom”, *ZAW* 126:4 (2014), 506-520.
- Hagedorn, A. C., “When did Zephaniah Become a Supporter of Josiah’s Reform”,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2:2 (2011), 453-475.
- Holladay, W. L., “Reading Zephaniah with a Concordance: Suggestions for a

- Redaction History”, *JBL* 120:4 (2001), 671-684.
- House, P. R., *Zephaniah: A Prophetic Drama*, JSOTSS 69, Decatur, GA: Almond Press, 1998.
- House, P. R., *The Unity of the Twelve*, Library of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Kelle, B. E., et al., eds., *Interpreting Exile: Displacement and Deportation in Biblical and Modern Contexts*, Atlanta, GA: SBL, 2011.
- Kessler, J., *The Book of Haggai: Prophecy and Society in Early Persian Yehud*, Leiden: E. J. Brill, 2002.
- Knoppers, G. N., et al., eds., *Exile and Restoration Revisited: Essays on the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in Memory of Peter R. Ackroyd*, Library of Second Temple Studies, London: T & T Clark, 2009.
- Nogalski, J. D., “Isaiah and the Twelve: Scrolls with Parallel Functions in the Corpus Propheticum”, Benzi, G., Di Pede, E., and Scaiola, D., eds., *Profeti maggiori e minori a confronto. Major and Minor Prophets Compared*, Nuova Biblioteca di Scienze Religiose 61, Roma: Editrice LAS – Pubblicazioni dell’Università Pontificia Salesiana, 2019, 77-92.
- Nogalski, J. D., “Preexilic Portions of the Book of the Twelve: Early Collections and Composition Models”, H. J. Fabry, ed., *The Books of the Twelve Prophets: Minor Prophets and Major Theologies*, BETL 295, Leuven: Peeters, 2018, 33-51.
- Nogalski, J. D., “Recurring Themes in the Book of the Twelve”, *Interpretation* 61 (2007), 125-136.
- Nogalski, J. D., *The Book of the Twelve and Beyond: Collected Essays of James D. Nogalski*, SBLAIL 29, Atlanta, GA: SBL Press, 2017.
- Nogalski, J. D., “The Book of the Twelve is not a Hypothesis”, Di Pede, E. and Scaiola, D., eds., *The Book of the Twelve: One Book or Many? Metz Conference Proceedings, 5-7 November 2015*, FAT II/9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37-59.
- Nogalski, J. D., “The Comple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Tiemeyer, L. S. and Wöhrle, J., eds., *The Book of the Twelve: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VTSup 184,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Literature 9, Leiden: Brill, 2020, 65-89.
- Nogalski, J. D., “These Seventy Years: Intertextual Observations and Postulations on Jeremiah and the Twelve”, Wilson, I. D. and Edelman, D. V., eds., *History, Memory, Hebrew Scriptures: A Festschrift for Ehud Ben Zvi*,

-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5, 247-258.
- Nogalski, J. D., “Un et douze livres: la nature du processus rédactionnel et les implications de la présence de matériau cultuel dans le Livre des XII Petits Prophètes”, Macchi, J. D., Niha, C., Römer, T. and Rückl, J., eds., *Les recueils prophétiques de la Bible. Origines, milieux, et contexte proche-oriental*, Le Monde de la Bible, 64, Genève: Labor et Fides, 2012, 361-386.
- Nogalski, J. D., “Where Are the Prophets in the Book of the Twelve?” Boda, M. J., Floyd, M. H., and Toffelmire, C. M., eds., *The Book of the Twelve and the New Form Criticism*, ANEM 10, Atlanta, GA: SBL Press, 2015, 163-182.
- O’Brien, J. M.,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Minor Proph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Pinker, A., “The Book of Zephaniah: Allusions to the Tower of Babel”, *Jewish Bible Quarterly* 28 (2000), 3-11.
- Qeming, M., “Social Justice and Divine Reighteousness in the Old Testament Wisdom Traditions”, 『성경원문연구』 42 (2018.4), 115-129.
- Schart, A., “Das D-Korpus, eine Vorstufe des Zwölfprophetenbuches in der Exilszeit”, Fabry, H. J., ed., *The Books of the Twelve Prophets: Minor Prophets and Major Theologies*, BETL 295, Leuven: Peeters, 2018, 53-78.
- Schart, A., “Das Zwölfprophetenbuch als redaktioneller Großeinheit”, *TLZ* 133 (2008), 227-246.
- Schart, A., “Gottes Sinne im Zwölfprophetenbuch”, Bachmann, V., Schellenberg, A., and Uberschaer, F., eds., *Menschsein in Weisheit und Freiheit. Festschrift für Thomas Krüger*, OBO 296, Leuven: Peeters, 2022, 167-184.
- Schart, A., “Putting the Eschatological Visions of Zechariah in Their Place. Malachi as a Hermeneutical Guide for the Last Sec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Boda, M. J. and Floyd, M. H., eds., *Bringing Out the Treasure. Inner Biblical Allusion in Zechariah 9-14*, JSOTSup 37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333-343.
- Schart, A., “The Concluding Sections of the Writings of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A Form- and Redaction-Critical Study”, *PRSt* 43 (2016), 243-256.
- Schart, A., “The First Sec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Hosea, Joel, Amos”, *Interpretation* 61 (2007), 138-152.
- Schart, A., “The Jonah-Narrative Within the Book of the Twelve”, Albertz, R.,

- Nogalski, J. D., and Wöhrle, J., 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Methodological Foundations, Redactional Processes, Historical Insights*, BZAW 433, Berlin: De Gruyter, 2012, 109-128.
- Schart, A., “Totenstille und Endknall. Ein Beitrag zur Analyse der Soundscape des Zwölfprophetenbuchs”, Karrer-Grube, C., Krispenz, J., Krüger, T., Rose, C., and Schellenberg, A. eds., *Sprachen, Bilder, Klänge: Dimensionen der Theologie im Alten Testament und in seinem Umfeld, Festschrift für Rüdiger Bartelmus zu seinem 65. Geburtstag*, AOAT 359, Münster: Ugarit-Verlag, 2009, 257-274.
- Schnittjer, G. E., *Old Testament Use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2021.
- Sweeney, M. A., “A Form-Critical Reassessment of the Book of Zephaniah”, *CBQ* 53 (1991), 388-408.
- Sweeney, M. A., *The Twelve Prophets*, vol 2, Berit Olam, Collegeville, MN: A Michael Glazier Book, 2000.
- Sweeney, M. A., *Zephaniah*. Hemeneia, Minneapolis, MN: Fortress, 2003.
- Werse, N. R., *Reconsidering the Book of the Four: The Shaping of Hosea, Amos, Micah, and Zephaniah as an Early Prophetic Collection*, BZAW 517, Berlin: De Gruyter, 2019.
- Werse, N. R., “Reconsidering the Problematic Tripartite Structure of Zephaniah”, *ZAW* 130:4 (2018), 571-585.
- Werse, N. R., “Realigning the Cosmos: The Intertextual Image of Judgment and Restoration in Zephaniah”, *JSOT* 45:1 (2020), 111-127.
- Williams, D. A., “The Date of Zephaniah”, *JBL* 82 (1963), 77-88.

<Abstract>

## **The Canonical Location of Zephaniah in the Book of the Twelve and Its Implications**

Yoon Jong Yoo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pursues to show the implications of the canonical location of Zephaniah in the book of the Twelve. Among the three 7th century prophetic writings, it should be chronically ordered as Zephaniah (622), Nahum (612), and Habakkuk (605). However, it is in the ordered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It is necessary to ask why these three books are placed in the present order. To search for the reasons behind it, the author takes the methodology called canonical criticism and intertextual approach. It accords with recent scholarship which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welve prophetic writings as a single historical, literary, and theological book from the 8th century in the Assyrian period to the 5th century in the Persian period.

Zephaniah is placed as the 9th book preceded by Habakkuk and followed by Haggai. Between Zephaniah and Haggai, there are historical events of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Judah (587), exile to the Babylon (587-539), and return to homeland (539-520). Though Babylon is not mentioned in Zephaniah, there are lots of allusions to imminent destruction of Judah and exile to the Babylon. It is probable that the reason why Zephaniah comes after Nahum and Habakkuk is that the book has many occurrences concerning ‘the day of YHWH’s wrath’ which denotes destruction and forced deportation by the enemy in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as well as in the Bible. In addition, the word *šbh* referring to exile also occurs twice in the book of Zephaniah. Some messages in the book of Zephaniah are set for lessons in the exilic period in order to be hidden by God. First, seek YHWH, justice and righteousness, and humility (2:1-3). Second, wait for me until the day I rise up to the prey (3:8). Third, God made the promise to leave the oppressed and the poor as remnants (3:12). Zephaniah also declares oracles against nations (2:4-15)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7th century prophetic writings. The book of Nahum declares the fall of Assyria. The book of Habakkuk anticipates the rise of

Babylon as another empire. Zephaniah does not mention Babylon as the enemy of Judah, but accepts the disaster by the enemy as God's plan, and believes that Babylon will not avoid the fate of Assyria as well.

It also should be noteworthy to consider theology of post exilic canonical community responsible for the book of the twelve as a canon. It is clear that the post-exilic canonical community have accepted messages of the book of Zephaniah as God's words for the community. It is believed that they were still in the exile because the Persian empire still controlled the land of Yehud.